



‘내 탓이오’ 운동이라도 펼쳐야...

본지 김한웅 부장

지난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차적으로 주무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설마 하면서도 예견했던 일이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비롯 외부 인사들까지 모여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

올해는 축산업계에 이러다 할 커다란 이슈가 없으니 당연히 국회의 관심은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육계산업으로 쏠렸다.

개중에는 마땅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골치 아픈 일에 침묵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양계파트로 집중됐다.

결국 국정감사장에서는 계열화사업이 맞는지, 육계사육계약서가 불평등 하느니, 병아리·사료 품질이 어떠하다느니 등등 내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지엽적인 일들이 방송을 타고,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쪽은 맞다, 또 한쪽은 아니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기가 찰 노릇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결국 한쪽은 위증을 하고 있으니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서 철저히 검증을 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육계업계는 FTA를 비롯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이미 미국, 브라질에 이어 칠레까지 한국에 닭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장 우리 육계업계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난계대 질병 근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수도룩하다.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흠집내기로 일관하며 역지를 부리

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가 생산성을 높이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조차 힘든 주장도 제기됐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런 사태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한 정책당국자들에게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뭘했냐는 식의 국회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는 육계산업하면 진절머리가 날 만한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고 실무자들은 한바탕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나서 본인의 주관으로 육계업계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회를 갖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해 일단락 되기는 했으나 뒷맛은 여전히 씁쓸하기 짝이 없다.

과연 우리업계는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을 것인가?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과연 끝장 토론회를 해서 해결책이 나올지도 의심스럽다.

한국의 닭고기 산업은 어느 축종 보다도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육계산업 종사자들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모 사무관의 말대로 “내 탓이오” 운동부터 전개해 나가는 것이 순리인 듯싶다. 